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사슴을 못 봤는데요.”

사슴은 나무꾼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선녀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보름 밤에 산 위에 있는 연못에 가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녀의 날개 옷을 하나 감추세요.”

나무꾼은 보름 밤에 산 위에 있는 연못에 가 보았습니다. 정말 선녀들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날개 옷 한 벌을 감춰했습니다. 선녀들이 하나 둘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선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옷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선녀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선녀와 나무꾼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웠습니다. 보름 밤이면 하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날개 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 번 만 입어 볼게요.”

선녀는 날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슬펐습니다. 어느 날 사슴이 찾아 와서 말했습니다.

“보름 밤에 산 위에 있는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나무꾼은 보름 밤에 그 연못에 가 보았습니다. 정말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두 아이와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 나라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인이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말에서 절대로 내리면 안 돼요. 말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 나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어머니를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이 좋아하는 호박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호박죽을 먹으려고 그릇을 받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은 하늘 나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영영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_____으로 태어났습니다. _____이 하늘을 보고 우는 것은 나무꾼이 하늘 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 다음 각 장면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1.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주는 장면

사슴: 아저씨, 아저씨,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해요.

나무꾼: 여기 어서 숨어. (사슴 숨는다)

사냥꾼: 아저씨,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나무꾼: _____. (사냥꾼 간다)

나무꾼: 사슴아, 사냥꾼이 갔어. 어서 나와.

사슴: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보름 밤에 산 위에 있는 연못에 가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녀의 날개 옷을 하나 감추세요

2. 나무꾼이 선녀들을 보고 날개 옷을 감추는 장면에서 선녀를 집에 데리고 가는 장면

나무꾼: 사슴 말대로 정말 _____.

날개 옷이 어디에 있지? 음, 저기에 있네. 한 벌 감추어야지.

선녀 1: 시간이 됐어. 어서 하늘 나라로 돌아가자.

선녀 2: 네, 하늘 나라로 돌아가요.

선녀 3: 그런데 내 날개 옷이 _____. 어떻게 해요?

선녀 1: 어떻게 하지?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돼. 우리 먼저 갈게.

선녀 3: _____.

나무꾼: 선녀님, 왜 산 속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선녀 3: _____.

나무꾼: 그럼, 나와 같이 우리 집에 _____.

3.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 가는 장면

선녀: 하늘 나라가 너무 그리워요.

나무꾼: 사실은 내가 당신 날개 옷을 _____. 여기 날개 옷이 있어요.

선녀: 어머! 당신이 제 날개 옷을 감추었다고요? 아, 정말 제 날개 옷이군요.

한 번 _____.

나무꾼: 그렇게 해요.

선녀: 애들아, 이리 오너라. 여보, 저는 _____.

나무꾼: 여보, 가지 말아요. _____.

4. 사슴을 다시 만나는 장면

사슴: 나무꾼님,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나무꾼: 어, 사슴아. _____.

사슴: 그래요? 그럼, 보름 밤에 산 위에 있는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나무꾼: 고맙다, 사슴아.